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159호 [루계 제 25668호] 주제 106 (2017)년 6월 8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일환동지,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전용남동지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가 성대히 진행된 영광의 대회장을 배경으로 풍경에도 소원하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게 된 참가자들의 크나큰 격정과 환희로 촬영장은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뜻과 절을 합쳐 우리 학생소년들을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로, 희망과 미래의 전부로 내세워주시며 이 세상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온 나라 학생소년들의 한결같은 축원의 마음을 담아 소년단체표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올리고 붉은네라이를 메어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는 조선소년단을 영원히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김정일소년단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하시면서 함일아동단의 전통, 백두의 혈통을 곳곳이 이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 청년동맹의 참다운 교대자들로 튼튼히

준비해가는 300만 소년단원들의 기상을 만방에 과시한 대회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회참가자들이 우리 혁명과 주체적소년운동발전의 요구에 맞게 소년단사업에서 새로

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키며 조선소년단을 지역제의 롤마라고 사회주의조선을 위하여 항상 준비해가는 백두산대국의 미래의 주인공들의 대오로 억척같이 다져나가기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목청껏 리치는 참가자들의 격정에 넘친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진두지휘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를 마련해주시고 몸소 대회에 참석하시어 주제적소년운동의 전성기를 펼쳐나가는데서 강명적인 지지를 안겨주시였으며 오늘날 사랑의 한풍에 안아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신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과 고마움에 넘쳐 참가자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한생토록 소중히 간직하고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소년단의 붉은 기발을 휘날리며 혁명의 계승자, 앞날의 강성조선을 떠메고나갈 기동감들로 역세게 자라날 굳은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